

2025 KAFSA·KADIA 하계 정기총회 및 컨퍼런스, 제주에서 성료



전국 130여 개 대학 국제교류 관계자 참여… 외국인 유학생 정책 및 협력 모델 공유

한국외국어대학교가 회장교(회장 양재완 한국외대 국제교류처장)로 주관한 2025년도 한국유학업무협의회(KAFSA) 및 전국대학국제처장협의회(KADIA) 하계 정기총회 및 컨퍼런스가 지난 6월 25일(수)부터 27일(금)까지 제주 메종글래드호텔에서 2박 3일 일정으로 성공적으로 개최되었다.

이번 행사에는 전국 대학 국제처장 및 국제교류 실무자 130여 명을 포함해, 교육부, 법무부, 국립국제교육원(NIIED),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전국 지자체 및 RISE센터의 유학생 담당자들이 대거 참석하여, 고등교육 국제화의 현황과 미래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외국인 유학생 정책부터 대학·지자체 협력사례까지… 정책과 실무의 소통 플랫폼

첫날인 6월 25일에는 KAFSA/KADIA 임원회의를 시작으로 개회식이 진행되었으며, 진명기 제주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와 한상신 국립국제교육원장이 축사를 통해 국내 고등교육 국제화에 대한 정부의 정책 방향과 비전을 제시하였다.

이어 열린 정책 세션에서는 교육부 교육국제화담당관실의 ‘외국인 유학생 유치 정책 추진현황 및 과제’, 법무부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의 ‘광역형 유학비자 정책’ 발표가 진행되어 유학생 유치와 체류환경 개선을 위한 행정적 기반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다. 오후에는 정기총회와 환영 만찬이 마련되어 참가자 간의 활발한 교류의 장이 펼쳐졌다.



지역 특화형 인재유치와 유학생 지원 우수사례 발표

6월 26일에는 유학생 유치와 관련된 지자체와 대학의 협력 우수사례가 공유되었다. 국립국제교육원은 지자체와 고등교육기관 간의 협력사업을 소개하였으며, 계명대학교는 지자체-대학 간 연계 사례를, 아주대학교는 유학생의 심리·정서적 지원 프로그램을 소개하며 실질적인 정책 수립과 운영방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오후에는 박재희 석천학당 원장의 ‘손자병법과 전략적 리더십’ 특강 이후 환송 만찬이 진행되어 참가자 간 마지막 교류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총회를 통해 KAFSA와 KADIA는 국내 대학 간 네트워크 강화는 물론, 유관 기관 및 해외 협의체와의 협업 기반을 마련하며 고등교육 국제화의 허브 역할을 더욱 공고히 하였다. 특히 회장교인 한국외국어대학교는 실무와 정책의 가교 역할을 수행하며 국제교류 및 국제입학관리의 리더십을 확립하는 성과를 거두었다.